

전주의 근현대 모습 시민 삶의 흔적 엿보다

시청서 '전주 기록물 전시회'

수집공모전 입상작 중심
기증 캠페인 통해 모은
기록물들 400여점 선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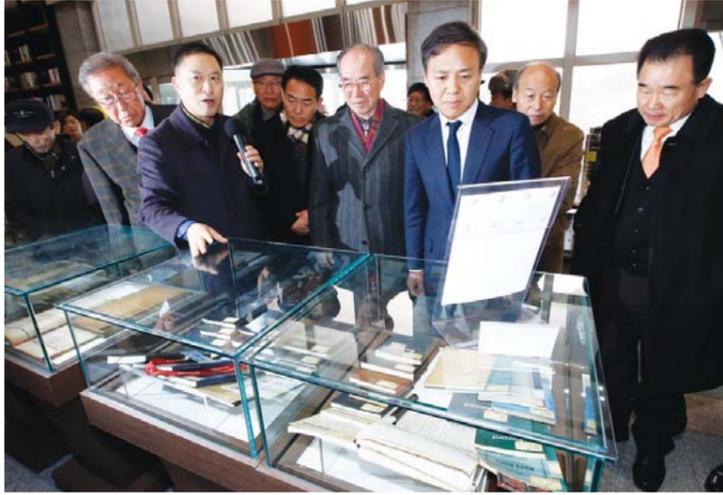
전주의 근현대 모습과 시민들의 삶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전주관련 기록물 400여점이 전시된다.

전주시는 11일 시청 로비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민간기록물관리위원, 기록물 기증자, 기록물 관련 지역 원로, 유관기관 관계자, 전국 기록물 연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전주 기록물 전시회' 개막식을 가졌다.

'도시의 기억을 건다'를 주제로 오는 22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기록물 전시회에서는 전주 기록물 수집공모전 입상작을 중심으로 기증의 날과 기증 캠페인을 통해 시민이 모은 전주 관련 기록물 400여점이 전시된다.

전시되는 주요 기록물은 △1920~60년대 전주 일대기를 담은 사진 및 문서 △1959년 전동성당 학생회 창간호 성우(聖友) △1930년대 가족앨범 및 도조문서 △1911년 신약전서 △총 447개월 동안의 월급봉투 △1965년 도호남약도(동별 약도, 인물, 행정구역 기술) △국립건설연구소 전주지도(1969년) △1930년대 영수증서 △1940년대 전주분정 소재 '전촌' 주장 도자기 술독 등 책·문서·사진·박물류 등을 총망라한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들이다.

특히, 앞서 열린 제3회 수집공모전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1963년 전주종합경기장 건립 당



11일 전주시청에서 '제2회 전주 기록물 전시회'가 열린 가운데 김승수 시장과 전시회 관계자들이 시민들이 모은 기록물들을 살펴보고 있다.

시 전주천의 모래와 자갈 채취부터 경기장 완공까지의 모든 과정을 기록한 136점의 사진도 전시기간 내 만나볼 수 있다.

또한, 특별 전시로 전주문화원이 소장중인 향토자료와 창안 이삼만 서예물,故 천이두 교수의 일기 30여권(1948~2000년)도 전시된다.

이와 관련, 이날 개막식에서는 기증자 대표의 축하 메시지를 시작으로 '제3회 전주 기록물 수집공모전 시상 및 전시회가 있기까지 가장 큰 역할을 한 전주 관련 기록물 기증자 170여명의 이름을 새겨 넣은 족자 펼침 이벤트도 진행됐다.

기증자 대표인 최봉섭 씨는 "우리들 집안 책상이나 장롱 서랍 속에서 고물 취급 받았던 자료들이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귀중한 전주시의 자료로 대우 받게 되어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전주만의 자산이 무엇인지, 왜 가치가 있는지, 왜 전주가 중요인지 설명할 수 있으면 전주의 원형부터 찾고 알아가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전주 이야기가 기록으로 전해지고, 목직함 감동으로 남을 수 노력해 전주정신의 숲(기록원) 설립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가족들과 함께 무료로 문화를 즐기자

전은 '문화가 있는 날' 27일 열어
전북대 '엔터테인먼트' 식전공연
극단 명태 연극 '개똥벌레'로 펼쳐져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오는 27일 오후 7시 전북은행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제12회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엔터테인먼트'의 식전공연과 지난 20년간 전문예술법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극단 명태'의 가족연극 '개똥벌레'로 펼쳐진다.

가족연극 '개똥벌레'는 어렵고 힘들었던 어린 시절 때문에 각자 따로 성장해야만 했던



두 자매가 18년 만에 다시 집을 찾아 재회하게 되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서로를 용서하며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훈훈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연 관람은 8세 이상 전북도민 누구나 무료로 가능하고, 접수는 오는 20일까지 전북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북은행 노시형 사회공헌부장은 "전북은행이 연말연시를 맞아 전 연령층이 공감하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마련한 가족연극 공연에 많은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도내 문화·예술·공연 분야의 사회적기업을 초청해 활동무대를 마련하고, 전북도민에게는 정기적인 공연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6·9·12월 넷째 주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문화가 있는 날'을 개최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학제의 신간도서

전통과 과학이 접목된 치료혈

이사 리즈 '경락경혈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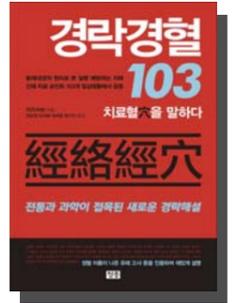
"사실 약물이 인체 내의 술을 대신 소화시켜 줄 수 없고, 술의 소화는 전적으로 자신의 몸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술 깨는 약은 술이 간과 위장 등의 장기에 해를 미치는 것을 막지도 못합니다. 몇 가지 술 깨는 약들은 이노와 해주 작용이 있어서 취한 사람이 취한 후에 복용하면 술을 마신 후에 발생하는 복부 불편감이나 구역감 같은 증상을 완화해 주지만 알코올 분해 대사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작용은 없습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술을 조금씩 마시는 것뿐이며, 해주하고 간을 보호하는 약물에 기대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는 좋지 않습니다."(359쪽)

중국약선연구회 이사 리즈가 쓴 '경락경혈 103'이 국내 번역·출간됐다. 리즈는 중국을 대표하는 전통의학 병원인 양생당의 주치의다. 그는 기원전 4~5세기에 완성된 고대 중국의학 경전인 '황제내경' 원리를 활용해 질병이 생기지 않는 지혜를 찾았다고 했다. 복잡하고 번잡한 인체의 치료 포인트를 103개로 한정해, 이를 정리한 책이다. 2010년 중국에서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바 있다.

본인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건강 관리법을 담았다.

"불면증은 성인 누구에게나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증상입니다. 한두 번은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겠지만, 병의 경과가 길어질수록 엄청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불면증의 원인은 다양한데, 가장 흔한 원인은 심장과 원장이 서로 잘 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장의 물이 위로 올라가고 심장의 불기운이 아래로 내려가지 못해, 가슴이 답답하고 편하게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심맥혈과 조해혈을 자극해 주면 좋습니다. 엄지와 검지를 동시에 사용해서 두 경혈을 눌러 주십시오. 매번 3~5분 정도 매일 지압하면 신장의 수기를 심장으로 보내어 심장의 화기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304쪽)

"태백혈은 발바닥 앞부분에 위치하여 가장 대표적인 작용은 발바닥의 통증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많은 여성들은 한 번 쇼



일상 속 응용 건강 관리법 담아내
"우리가 생활하면서 겪게되는
불편한 증상도 응급처치 가능"

핑을 하면 수 시간씩을 소모하는데, 손에 든 쇼팩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다리 통증이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 가지마자 다리를 주무르고 있죠. 바로 이러한 상황에 태백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혈을 자극할 때는 손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맨발로 서서 반대쪽 발뒤꿈치를 이용하여 태백혈을 밟아주는 것이 좋습니다."(217쪽)

저자는 우리가 생활하며 겪는 약간의 불편한 증상들도 내관혈을 사용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높은 빈도로 사용되는 증상이 자동차와 뱃멀미, 구토 등의 증상에 대한 치료"라며 "옛사람들은 한 지방에서만 지내는 경우가 보통이었으므로 별로 중요하지 않았지만, 현대 사회 들어 교통수단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해졌다"고 말했다.

"그렇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멀미로 여행을 다니기 어려워졌고, 매번 고문받는 느낌으로 외출하곤 한다. 이때 내관혈을 자극하면 증상이 멈춘다. 한 손으로 가볍게 다른 쪽 손목 위 내관혈을 지압하거나 동전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권승원·김지혜·정재영·한기진 옮김, 400쪽, 청홍, 2만7000원. /뉴스1

'몸아리랑', 대한민국무용대상 대통령상... '시퀀스', 문체부장관상

사단법인 한국무용협회는 '2017대한민국무용대상'에서 가장 큰 영예인 큰 영예인 대통령상을 리을출연원원 리을무용단의 '몸아리랑 - 아제 아제' (안무 홍은주)가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전날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열린 결선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은 덴스

컴퍼니 더 바디의 '시퀀스(Sequence)' (안무자 류석훈)에게 돌아갔다. 이번 시상식은 공정성을 위해 본선과 준결선을 거친 두 팀이 결선에서 나란히 공연한 후 현장에서 즉시 결정했다. /뉴스1

구독·광고문의 288-9700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